

부산시, 노인 일자리·건강문제 ‘한번에’ 해결

‘하하 건강파트너’ 본격 추진 건강센터서 ‘건강업 사업’ 지원 보건소·7곳 병원서 전문인력 양성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노인 일자리와 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 협력 기반으로 추진하는 노쇠 예방 노인 일자리 사업 ‘하하 건강파트너’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142명의 건강 파트너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 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2016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특화 사업으로 지역 밀착 건강 관리 기관 ‘마을건강센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 센터들은 ‘하하 마을건강센터’로 불린다.

마을건강센터의 노쇠 예방 사업인 ‘건강업사업’은 2023년 시범 사업을 거쳐 지난해에는 마을건강센터 전역



하하 마을건강센터 노인 일자리 참여자 활동 모습. /부산시

으로 확대됐다. 시는 올해부터 마을건강센터에 ‘하하 건강파트너’를 배치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시의 대표 사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올해는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에 ▲하하마을건강센터61곳 ▲건강생활지원센터 7곳 ▲공공·민간병원 7곳 ▲구·군 시니어클럽 15곳 ▲하하캠퍼스 건강센터 등 90여 개 기관이 참여한다.

‘하하 건강파트너’는 일정 시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한 이후 마을건강센

터, 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캠퍼스 건강센터로 배치된다. 이곳에서 마을 건강활동가 등과 함께 ▲노쇠 검사 ▲건강업 프로그램 운영 ▲건강 소모임 운영·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보건소와 7곳의 협력 병원에서 노쇠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하 건강파트너’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시니어클럽 등 수행 기관은 참여자의 업무 지원과 관리를 돕는다.

한편 부산은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지난해 기준 23.9%로 8개 특별·시 가운데 가장 높으며, 가장 빨리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부산 노인의 사회적 고립, 의료 및 건강 관리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은 다른 대도시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부산 시민은 노후 생활에서 건강과 소득의 위협에 크게 노출돼 있다. 노인 건강과 일자리는 노인의 빈곤 수준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핵심적이며 이는 그 어떤 대도시보다 시가 신경 써야 할 사회적 정책적 의제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하하 건강파트너’ 사업이 마을에서 이웃끼리 서로를 돌보는 건강 공동체를 공고히 하고 부산 시민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지원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수니와칠공주 멤버 공개오디션 포스터.

칠곡군 ‘수니와칠공주’ 새 멤버 모집

세계 최고령 래퍼 그룹 ‘수니와칠공주’가 새 멤버를 모집한다.

지난해 10월 멤버 서무석(87)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채우기 위해 오는 3월 오디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니와칠공주’는 평균 연령 85세의 할머니들로 구성된 래퍼 그룹으로, 한글을 배우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3년 데뷔 이후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으며, 새 멤버 선발을 통해 기존 멤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칠곡(경북)=김준한 기자 kih9@

영덕군 소아청소년·산부인과 신속 진료

영덕군은 의료기관과의 협력으로 양질의 필수요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1시간 이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료가 가능한 ‘ONE-hour 진료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저출생을 극복하고 필수요료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 중심의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영덕군은 영덕아산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 야간 연장 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장성군 배수개선사업 선정... 90억 확보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 황룡면 옥정리·황룡리 일대의 배수 문제를 해결하는 ‘황룡면 배수개선사업’을 제안해 기본조사 대상지구에 선정됐다.

군은 해당 사업을 통해 배수펌프장 2곳과 배수문 1곳을 설치하고, 배수로 1.37km를 확장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면적은 73헥타르(ha)에 이르며, 사업비 90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해 재정적 부담도 덜었다. /장성(전남)=양수영 기자

경주시 전기·수소차 보급사업 추진

경주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2025년도 전기·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17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자동차 1175대, 수소자동차 65대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보급사업은 상반기 821대(승용 600, 화물 210, 승합 11), 하반기 354대(승용 260, 화물 90, 승합 4)로 나눠 진행된다.

대당 보조금 단가는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승용차 313~1210만원, 화물차 271~2435만원, 승합(중형) 1262~1억1276만원 등 차등 지원된다. /경주(경북)=최지은 기자 asdadx@

광주시,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본격화 대구시, 초등 돌봄시설 9곳 확충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 마무리 이달 말 사업 계획안 제출 예정 2029년 하반기 착공 계획

광주시가 대형 복합쇼핑몰 2곳이 동시에 들어서는 광천권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건설이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까지 마쳐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광천상무선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한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되며 이달 말께 국토교통부에 사업 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가 ‘광천상무선’의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올해 상반기 승인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신속 추진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등이 진행된다.

광천상무선에 대한 정부 예산 등이



광주 도시철도. /뉴스시

수립되면 2029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32년 완공할 계획이다.

광천상무선은 도시철도 1·2호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 환승역인 상무역에서 출발해 광천권역과 신안동을 지나 광주역 후문으로 연결되는 연장 7.78km의 동서축 횡단 노선이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광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의 핵심 사업이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1분기 내 4곳 개소 예정

대구에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올해 초등학교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틈새없는’ 돌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현재 14곳에서 23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확충되는 센터 9곳 가운데 4곳은 이미 설치 완료돼 올해 1분기 내 개소 예정이며, 나머지 5곳은 올해 신규 설치될 계획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제한 없이 만6~12세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학기 중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방학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돌봄 이용이 가능하며, 숙제지도와 일상생활

교육 및 외국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구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의 돌봄시설을 활용해 등·하교, 야간, 주말 등 돌봄 사각시간에 만6~12세 초등학교생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틈새 돌봄 사업도 운영한다.

틈새돌봄 사업은 대구시에서 2021년부터 초·중·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형 방과 후 돌봄사업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돌봄 이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1곳에서 155곳으로 늘어나며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도서관, 복지관 등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느린학습자 아동지원 사업인 ‘틈새돌봄 성장상’ 프로그램도 신설될 계획이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경북도, ‘아열대작물연구소’ 최적지 선정 경남도,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600억 투입

설립 최적지로 ‘포항시’ 최종선정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선 8기 시작과 더불어 약속한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연구소’ 공약이 2년 만에 최종 설립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도는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상지 평가용역을 실시한 결과 포항시가 아열대작물연구소 설립 최적지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적합성, 연구기반 충실성, 지자체 추진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번 용역에서 포항시는 저온기 평균기온, 아열대기후 진입도, 미래 기온변화 예측전망,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추진 의지 등에서 최적지로

평가됐다.

용역보고서에 제안된 결과를 기초로 연구소 설립을 위한 관계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포항시와 공동으로 토지, 건축 등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가 소득작물 육성을 위한 경북 아열대작물 육성 5개년 종합계획 수립, 경상북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아열대연구팀 신설 등 기반 조성 연구 기능 강화, 농가 교육 등 현장 기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가축 응급진료 동물병원 당번제 시행

경남도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기별 발생 가능성을 분석해 방역 예산 600억원을 선제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 도래지 통제 초소 운영 강화를 위해 예비비 5억 6000만원과 긴급 방역 재료비 1억 5000만원을 긴급 투입한 바 있다.

AI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 사육 제한 및 질병 관리 ▲소규모 농가 소득 지원 공동방제단 운영 등 17개 사업에 169억원을 투입한다.

또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과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예방 약품 지원 ▲립피스킨 백신 접종 지원 등 17개 사업에 186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현장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 농장 주도의 책임 방역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구제역 방어력 확보 예방 접종 지원 ▲CCTV 등 방역 시스템 설치 지원 등 15개 사업 15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가축 응급 진료 동물병원 당번제를 18개 시군에 시행해 휴일 진료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가축 긴급 도축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